

# “진행된 갑상선암 로봇수술 효과”

이대서울병원, SCI학술지 발표  
바바 로봇변형 경부 절제술 수술  
큰 절개 없이도 정밀수술 가능



백세현 이대서울병원 외과 교수

로봇수술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술이 변형 근치적 경부 절제술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갑상선암에서도 로봇수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대서울병원은 백세현 이대서울병원 외과 교수, 권형주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 이해아 이대목동병원 임상시험센터 교수, 강경호 팽큐서울비이인후과·외과·내과 원장은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바(BABA) 로봇 변형 근치적 경부 절제술 수술 결과를 외과 분야의 권위있는 SCI학술지에 발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갑상선암에서의 로봇수술은 초기에 크기가 작고 주위 림프절 전이가 없는 갑상선 미세 유두암에서 주로 시행되었으나, 갈수록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2cm 이상의 크기나 주위 피막 전이가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시도되고 있다.

특히나 외측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갑상선암의 경우 변형 근치적 경부 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부 절제장이 10cm 이상으로 매우 커서 수술 후 목 부위 외형적 흉터가 심하게 남게 된다.

바바 로봇수술은 양쪽 겨드랑이와 유륜에 1cm 정도의 구멍 4개를 만들어 로봇 팔, 카메라를 몸속으로 넣어 암 세포를 제거하는 수술법이다. 이 때문에 다른 수술과 달리 눈에 보이는 큰 절개가 없이도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장점

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갑상선암에서의 바바 로봇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자료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적 외과 수술과 로봇수술을 통해 갑상선암 제거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종양 크기와 합병증 비율을 점목시켜 수술 결과를 성향 점수매칭이라는 통계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양 수술에서 갑상선암 수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일시적인 부갑상선 기능항진증과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성대마비, 수술 후 출혈, 상처 감염의 발생률이 외과 수술과 로봇수술 모두 유사하게 나왔다. 다만 수술 시간은 로봇수술이 수술을 위한 준비 절차로 인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세현 이대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바바 로봇수술은 흉터가 일반적 외과 수술보다 적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변형 근치적 경부 절제술과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삼성바이오에피스 ‘온트루잔트’ 4년간 추적 결과 ‘안전성 효능 확인’

좌심실 박출률 낮은 수치  
울혈성 심부전증 이상 ‘발견 無’



단 모두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의약품 효능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치료 시작 후 심각한 부작용이나 재발, 전이 등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학술대회(1)의 포스터 세션에 참여하여 항암제 ‘온트루잔트(허셉틴 바이오시밀러·사진)’의 새로운 추적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기존 임상시험 이후 추적 관찰에 동의한 총 36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트루잔트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 등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총 추적 관찰 기간은 5년이며,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는 그 중 53개월에 해당되는 최초 4년간의 수치를 집계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의 이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좌심실 박출률(LVEF)’ 수치가 저하된 환자는 온트루잔트 투여군 중 1명,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 중 2명으로 둘 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다른 안전성 지표인 ‘울혈성 심부전증(CHF)’ 관련된 이상 징후는 두 집

발생하지 않고 생존하는 비율인 ‘무사건 생존율(EFS)’은 온트루잔트 투여군에서 83.4%,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에서 80.7%의 결과를 보였다.

치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환자가 생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전체 생존율(OS)’은 온트루잔트 투여군에서 94.4%,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에서 89.6%의 수치를 보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4년 추적 임상결과를 포함한 총 3건의 온트루잔트 관련 임상 의학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해당 내용은 주최측의 웹 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 SK바이오팜,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대상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로 수상  
전 과정 독자적 진행... FDA 승인



SK바이오팜 조정우 사장(왼쪽)이 지난 28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시상식에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로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받았다.

SK바이오팜은 ‘제21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시상식에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로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세노바메이트는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로 11월에 출시됐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판매허가를 받았다.

조 사장은 시상식에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FDA 승인을 받고, 미국 시장에 직접 출시 하기까지 국내 최초의 도전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수상 강연에

서 조 사장은 국내 제약사에게 열린 이 노베이션과 전략적인 협업을 통한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SK바이오팜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신약개발

주진기에 걸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했으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사와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 SK바이오팜이 그동안 미국 FDA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했으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혁신 신약 2개를 보유한 제약사로서 앞으로 파트너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한 세노바메이트는 부분발작 뇌전증 환자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중추신경계 분야 및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상업화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들과 함께 영업,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 ASCO서 ‘허쥬마’ 위암 종양 축소효과 확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방암·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사진)’의 삼중요법 임상 1/2상 결과가 지난달 28일 개최된 2020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초록 및 포스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HER2 양성 진행성위암(AG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임상에서 ‘허쥬마’는 위암 환자의 종양을 크게 축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임상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라선영 교수 연구팀 주도로 진행된 연구자주도임상(IIT)으로 위암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허쥬마’, 펌브롤리주맙(제표명 ‘키트루다’) 및 화학요법의 삼중요법으로 진행됐다.

임상은 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앙 추적기간 18개월 간 삼중요법 치료를 진행했으며, 연구 기간 동안 임상 디자인에 따라 3명의 환자가 2년 치료를 종료했고 7명은 치료 중이다. 임상 결과 76.7%의 객관적반응률(ORR) 및 97.7%의 질병통제율(DCR)이 확인됐으며, 95.3%에게서 종양 축소(중앙 축소율은 54.6%)가 나타났다.

이번 임상 참여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은 8.6개월, 전체생존기간(OS)은 18.4개월이었다. /이세경 기자

# CJ제일제당, 유리천장 깨기 앞장... 여성 경쟁력 강화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 참석  
여성 사회적 참여, 리더십 기회보장



TGE 론칭 기념 촬영

CJ제일제당이 여성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UNGC(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TGE’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TGE’는 UNGC에 가입한 기업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 기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UNGC 회원사의 여성임원 비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CJ제일제당은 UNGC의 성 격차 분석 도구를 기반으로 기업의 여성역량을 자가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보상제도 및 평가제

도, 임금체계 등 모든 인사제도에 대해 양성평등을 적용하며 여성역량 및 리더십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UNGC와 UN여성기구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를 공식 선언,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한미약품 ‘치썩정’ 출시... 치질치료제 라인업 강화

한미약품이 간편하게 복용하는 경구용 치질약인 ‘치썩정(디오스민600mg·사진)’을 이달 출시한다.

작년 출시한 일회용 바르는 치질약 ‘치썩크림’과 병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치질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해 환자들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치썩정의주성분인디오스민은약해진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관 기능을 회복시키며, 염증 반응을 억제해 통증 및 붓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다양한 혈관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또 치질뿐만 아니라 정맥부전으로 인한 다리 통증과 부종 등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한미약품은작년1회용주입기에 담겨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질약인 치썩크림을 출시해 약국가에서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치썩크림은 주입기 너비가 현재 시판중인 치질 치료 크림 중 가장 좁은 6mm로, 약물을 도포하거나 항문 삽입 시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치썩정은 치질 치료시 1일 1정씩 2~3회, 정맥부전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1일 1회 1정을 복용하면 된다. 한미약품 그룹 계열사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